

# 야간노동 철폐보다 지구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다?

유형섭 기후정의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25년 10월 전국택배노조가 심야시간대 배송 제한을 제안하면서 새벽 배송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이후 이런 제안은 전 국민이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토론 자리도 열렸고, 특히 고정야간노동과 업무량 감시 속에서 과로사 사례가 많은 쿠팡 배송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코로나 이후 보편화된 새벽 배송 서비스의 사회적 기반과 비용에 대해 새로이 자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쿠팡의 시장 독점이 문제라며,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로 발걸음을 옮겨 갔다. 야간노동 철폐보다 지구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이다.

##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지구를 갉아먹는다

이제는 야간노동이 인간의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야간 교대근무는 관상동맥질환, 뇌졸중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을 높이며, 근무 연수가 많고, 노동시간이 길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정으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과 주간을 교대로 근무하는 경우보다 건강 악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된다. 야간노동은 또 우울, 불안, 불면 등 정신건강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질병성 재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 등으로 집중력이 저하되어 이차적으로 사고성 재해 위험도 높일 수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서 야간시간대 유족 급여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산재 사망사고 10건 중 8건이 심야(오전 0시~5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697>

야간노동은 환경과 기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기, 통신, 의료, 치안 등 필수 공공부문 외 산업에서도 사업주가 야간노동 시스템을 고수하는 이유는 결국 생산 공장을 24시간 돌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자본주의체제의 끝없는 이윤 추구는 물질대사 균열을 일으켜 자연 파괴와 환경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sup>2)</sup>. 이렇듯 자본은 지구 환경을 무분별하게 수탈해 지구 생태계는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야간노동은 이 같은 개념에 정확히 부합한다. 공장과 작업장이 밤새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제조, 운송,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도 생산이 밤새 이뤄진다. 화석 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 또한 한시도 쉬지 않는다.

야간노동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중국 내 대도시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밤 동안의 전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있다<sup>3)</sup>.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운용에 대규모 전기와 용수가 필요하여,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올려보내기 위해 송전탑 1만 개를 지어야 한다고 한다<sup>4)</sup>. 이러한 인프라를 건축하는 데도 많은 탄소가 쓰이지만,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 이후 그 공장들이 죄다 24시간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야간노동은 노동력을 더 긴 시간 착취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몸 자체를 황폐화하고, 그 몸을 둘러싼 지구 환경 모두를 잡아먹는다.

## 야간노동이 지속되는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

밤새워 일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주간보다 야간에 일할 때 몸이 더 고됨을 안다. 그럼, 야간 노동자들은 왜 그런 일자리를 선택할까. 2021년 고용노동부의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가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 회사 근무 체계상 야간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인원이 53%로 확인되었다. 즉, 야간수당이라는 경제적 동기로 노동자들이 야간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회사 또한 임금 지출을 높이더라도 24시간 생산을 통해 얻는 이윤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과 기후, 이중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기존의

2) 사이토 고헤이,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 다다서재, 2021; 낸시 프레이저, 『좌파의 길 :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서해문집, 2023.

3) Liang Zhang, Jingchun Zhou, Wujun Xi, Jinliang Wang, Spatio-temporal pattern evolution of energy consumption carbon emissions at the city and county levels based on the population-kNDVI correction of nighttime light from 2000 to 2020,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Volume 130, 2025, 106655, ISSN 2210-6707, <https://doi.org/10.1016/j.scs.2025.106655>.

4)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1120600021#ENT>



▲ 노동자 건강과 지구를 위해 야간 노동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 환하게 불켜진 포스코 포항 공장. 사진 : 한노보연

저임금 체계 개선과 노동시간·생산시간 자체에 대한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 애초에 야간 노동이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잡지 않으려면, 주간근무만으로도 생활 임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필수 업무를 제외한 산업에서는 고정 야간근무나, 야간근무라는 선택지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법에서는 임신부와 아동·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야간노동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도 없고, 급여를 1.5배 지급해야 한다는 조문만 있다. 사실상, 국가는 밤에도 생산을 유지하며 지구를 파괴할 권리를 자본에 쥐여 주면서, 국민에게는 돈이 없으면 몸을 갈아 밤에도 일하라고 (일견 선택사항 같지만) 강제하고 있다.

### 지구와 인간, 모두를 지키기 위해 야간노동을 철폐하자

기후위기로 화석연료 발전소를 점차 줄여 나가고, AI의 도입 등 새로운 산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야간노동을 줄이자는 요구는 해일이 몰려오는 와중에 조개를 줍지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야간노동 철폐는 노동환경을 노동자의 건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는 기후정의 기본 원칙의 실현이자,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야간노동의 위험 경고에 대한 뒤늦은 응답이다<sup>5)</sup>. **알려**

5) 김근주, 야간 노동 교율의 의미와 방식,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5월호, p3-5